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2014년 교회표어 : 성령의 은혜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롬12:15)

☞ 매일 정오 12시는 온 성도들이 성전 건물 이전을 위해 5분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 이달의 캠페인 - 인사는 내가 먼저 교제는 기쁨으로

◎ **제직회:** 예배후 예, 결산을 위한 제직회가 있습니다.

◎ **협조:** 오클랜드 교육대학에서 실시하는 한국인 복지에 관한 프로젝트를 위한 설문 조사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2월 16일 오후 2시 15분 장소: 친교실 및 중고등부실 주관: Jenny Lee Vaydich 및 조교

◎ **성경공부:** 기초 성경공부와 제직(항존직)을 위한 성경공부를 아래와 같이 시작합니다.

1) 제직: 2월 11일(매주 화) 오후 7시15분 장소: 계수실, 기간: 11주

2) 기초: 2월 14일(매주 금) 오후 7시 장소: 계수실, 기간: 11주

◎ **감사:** 오늘 성도들의 교제를 위해 민광호, 석경숙 집사 가정에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 **새벽기도회:**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50분에 교회 1층 Chapel 실에서 있습니다.

◎ **찬양대:** 나무십자가 찬양대에 각 공동체의 참여를 바랍니다. 한 주만 찬양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3월 2일: 캄보디아 3월 9일: 태국 3월 16일: 베트남 3월 23일: 루마니아

3월 30일: 터키 4월 6일: 바누아투 4월 27일: 통가

◎ 2월 새벽기도회 본문

7일: 삼상 3:15-21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자의 올바른 태도 14일: 삼상 7:12-17 에벤에셀을 경험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

21일: 삼상 11:1-15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날입니다 28일: 삼상 14:47-52 순종으로 믿음의 가문을 세우라

해외 선교 바누아투: 삼마교회 및 청소년

국내 봉사 밀알장애우 봉사

온라인 선교 설교 방송: www.youtube.com /calvaryorgnz Facebook: www.facebook.com /calvarykoreanchurch

예배시간 안내

예 배	시 간	장 소
주일1부예배	주일 PM 1:00	본당
청년모임	주일 PM 3:00	Chapel
수요예배	수요일 PM 7:30	본당
새벽기도	금요일 AM 5:50	Chapel
아동부	주일 PM 1:00	Chapel
중고등부	주일 PM 1:00	별관

오시는 길



성령의 은혜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Rejoice with those who rejoice; mourn with those who mourn

Rome 12:15

2014년 2월 9일 16권 6호

맘을 맘출

우리교회는 언제 부턴가 소그룹으로 모여 예배 드릴 때 구역예배라는 이름을 공동체예배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부른다. 공동체라 함은 말 그대로 함께 모인 무리 라는 뜻이다. 그런데 왜 함께 모였을까? 그리고 모인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것일까? 요즘 같이 개인화가 되고 또 개별화되는 세상에 함께 모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보았다.

공동체는 유기체와 같이 생명을 가졌으므로 건강한 환경 속에서는 건강하게 성장 발전하게 된다. 공동체 안에는 여러 다른 사람들이 모이게 되며 여러 색깔과 모양이 함께 어울려 그 구성원대로 모양이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는 어떤 모양을 나타내게 될까?

공동체는 영어로 함께라는 Common 이라는 말과 하나가 되다 라는 말 unity가 합쳐서 된 말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즉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함께 모인 무리를 말한다. 그럼에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때로 갈등과 분열이 있는 것은 왜일까?

어느 공동체이든지 늘 주류그룹과 소수의 소외된 그룹이 있다. 그 소수 그룹이 급진적이든 방관자이든 그것은 그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지고 나아가야 할 과제이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른 달란트와 성격등을 주셨다. 그리고 혼자가 아닌 함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공동체 안에서 소수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을 경우 일방적이며 한가지 모양 한가지 색깔의 공동체가 되기 쉽다.

올해 우리교회 연간 주제가 함울 함즐(함께 울고 함께 웃다)이다. 믿음의 공동체는 세상의 어느 공동체와는 달라야 하며 함께 만나서 함께 웃고 함께 울더라도 그 안에 형식적이거나 가식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할 수 있는 한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작은 것 하나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위로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혹여나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맘울 맘즐(맘에 드는 사람 끼리 만 함께 울고 함께 웃다)은 없는지 나 자신부터 살펴볼 일이다. - 현석호 장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창립 1999/07/14



갈보리교회 담임목사: 이태한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www.calvary.org.nz

Ph: 09-369-5077 Ph: 09-475-6312 mb: 021-968-388 email: LTH-07@calvary.org.nz

주일 예배 오후 1시 인도:이태한목사

전 주	반주자
예배로 부름	시편 95:6-7
개 회 송	찬양대
참회의 기도	다함께
※ 찬 송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 성 시 교 독	24. 시편 46편
※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찬 송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대 표 기 도	최광암 집사
성 경 봉 독	사도행전 21:15-26
찬양대 찬양	나무십자가 찬양대
설 교	하나됨을 지켜라 /이태한목사
찬 송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헌 금 기 도	인도자
교 회 소 식	인도자
※ 응 답 송	나 주님의 기쁨되기 원하네
※ 축 도	이태한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저녁 7시 30분 인도:이태한목사

찬 양	수요 찬양단
기 도	김광영 집사
성 경	요나서 1:4-5
설 교	그러나 요나는 /이태한목사
합 심 기 도	인도자
광 고	인도자
찬 송	436.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주 기 도	다같이

청년 모임 오후 3시 인도:심창진목사

Q.T. 나눔과
조별 성경공부
기도 / 권준현 형제

◎ 2월 교회알기

제작회: 2월 9일(주일)
전도주일: 2월 23일(주일)
공동체 주간 수요예배: 2월 26일(수요일)

◎ 2월 예배봉사가

예 배 안 내: 경덕현/김인희
새신자안내: 김수원/최희숙/
박혜숙/경덕현
주 차 안 내: 김광영/민광호
주 방 봉 사: 한상순/김윤숙/장태옥/
양윤주/박재란

◎ 기도순서

이번 주 애찬: 한상순 집사
다음 주일: 현석호 장로
다음 주일 청년부: 이민우 형제
2월 19일 수요: 이기중 권사
2월 19일 애찬: 김영옥 권사
2월 23일 주일: 이광희 장로
2월 23일 청년부: 박찬준 형제

금주의 기도제목

1. 성령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마지막 때에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2. 삶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3. 성전 건물 이전이 은혜 중에 진행되고, 이 일을 위해 온성도들이 무시로 기도하도록.

선교와 증보기도

갈보리 각 공동체는 공동체별로 맺어진 선교사들과 긴밀한 교제를 통해 사역소식과 기도 제목들을 나누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심재우, 김신애 선교사(예준, 요엘)가 보내온 2월 기도편지입니다.)

From Shim's Family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태국의 상황은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국가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거주하는 곳은 시위가 진행되는 곳과 거리가 있는 편이어서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두 달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연락하지만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샬롬 형제, 자매들은 1월 한달을 한동대학교 NIBC팀과 함께 보냈습니다. 배기원, 윤동휘, 김선경으로 구성된 팀은 영어교육과 피아노 교육, 기숙사 환경미화 등으로 섬겼고,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먹고, 자며 서로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은 이제 2월에 있을 재시험 준비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매년 영어사역으로 저희를 섬겨주는 뉴질랜드의 Kevin 목사님의 추천으로 Morgan 자매와 Rachel 자매가 3주간 기숙사의 영어교육을 도울 예정입니다. 저희의 기도제목은

1.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날마다 더 사랑하고, 더 알아가는 가정이 되도록
2. 샬롬의 형제, 자매들이 재시험을 잘 준비하여 학업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그리고 매일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3. 영어교육을 돕기 위해 온 Morgan 자매와 Rachel 자매가 태국의 문화와 음식, 기후 등에 잘 적응하고, 우리 샬롬의 형제, 자매들을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4. 태국의 비상계엄령과 혼란스러운 정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 있고, 온 가족과 샬롬의 형제, 자매들의 안전을 위해서
5. 안식년과 다음 스텝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길

저희 가정에 보내주시는 기도와 사랑의 빛을 저희가 다 갚을 수 없습니다. 2014년 한해도 믿음으로 잘 출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십니다. 태국 방콕에서 심재우, 김신애, 예준, 요엘 올림

(David Jaiwoo Shim. jaiwoo.shim@gmail.com Tel:+66-(0)83-013-7291, 070-8690-9774)